KIMS Periscope
For God · For Nation · For Peace

제 447 호 2026 년 11 월 01 일

해외 해군기지의 귀환:
해양강국의 조건과 러시아의 딜레마

냉전기 미국과 소련의 전 세계 해군기지망을 출발점으로,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의 해외 해군 주둔 축소와 최근 재확대 구상을 분석한다. 러시아는 타르투스, 아프리카, 쿠바·베트남, 나아가 북한 항만 접근 등을 통해 원양 해군의 작전 지속성과 글로벌 영향력 회복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함대 전력과 재정의 소모, 조선·함정 엔진 산업의 제약, 해외기지 유지 비용과 상대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은 이러한 구상의 실현을 어렵게 한다. 결국 해외 해군기지는 원거리 전력투사와 군수지원을 위해 여전히 중요하지만, 이를 지속할 경제력·함대·군수망을 갖춘 글로벌 해양강국에게만 실질적 전략자산이 될 수 있다.

본 발간물은 한국해양전략연구소의 저작물로서 인용 시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Russian State University
Professor
Yury Sigov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오랜 기간 동안 지구 전체는 사실상 미국과 소련 간 세계 패권 투쟁의 무대였다. 이 투쟁에서는 모든 수단이 정당한 것으로 간주되었으나, 무엇보다 그것은 양국의 군대와 그들에게 종속된 두 진영, 즉 NATO와 바르샤바조약기구 사이에서 전개되었다. 두 진영이 직접적인 군사적 대결에 돌입하지는 않았지만, 양측은 전 세계에 걸쳐 자국의 군사적·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고자 했다.

그리고 그 수단은 일차적으로 광범위한 해군기지망의 전개였다. 미국과 소련 모두 광대한 영역, 특히 대양으로 격리된 지역에 대한 통제를 원했기 때문에, 해군기지의 건설과 유지는 모스크바와 워싱턴 양측 모두에게 우선 과제였다.

한때 소련은 인도양·태평양·대서양 연안 국가에 17개의 해군기지를 보유했다. 그중 일부는 단순히 "함대 군수지원소(fleet logistics centers)"로 불렸으나, 해당 명칭이 해군기지가 지니는 실질적 의미의 본질을 바꾸지는 못했다.

예멘, 시리아, 쿠바, 소말리아, 앙골라, 기니 등 일부 국가에는 소련 해군 함정이 상시 배치되었다. 다른 지역에서는 물·연료·식량 보급을 위해 정기적으로 기항하는 데 그쳤으나, 해당국(예컨대 세이셸)과의 합의에 따라 인도양 임무 수행을 위해 언제든 군함을 주둔시킬 수도 있었다.

미국은 대양에서 훨씬 더 전 지구적으로 활동했다. 미국은 전 세계 70개국 이상에 해군기지를 설치했을 뿐만 아니라, 필요할 경우 — 즉 소련과의 직접적 군사충돌 상황에서 — 이들 기지로부터 잠재 적국의 영토에 최대한의 타격을 가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했다.

본 발간물은 한국해양전략연구소의 저작물로서 인용 시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1991년이 도래했고, 초강대국 중 하나가 소멸했다. 소련이 붕괴하자 곧바로 다음과 같은 질문이 제기되었다: 한때 영향력 있는 해양·대양 강국이었던 이 국가의 해군 기지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소련의 기지를 승계한 러시아연방은 군사적·경제적으로 극도로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었으며, 모스크바 당국으로서는 원거리 지역에 해군 주둔을 유지할 여력이 없었다.

나아가 최근까지 모스크바의 동맹국으로 간주되던 여러 국가들은 소련에서 벌어진 사태와 그 붕괴의 양상을 목격한 뒤, 러시아 측에 해군 주둔에 대한 엄격한 대가 지불을 요구하거나 아예 러시아 해군 장병들에게 자국 영토에서 철수할 것을 요청했다.

쿠바(미국 겨냥 미사일이 탑재된 소련 잠수함이 한때 배치되었던 시엔푸에고스 항)와 베트남(2002년까지 태평양함대 예하 러시아군 부대의 수병과 조종사 수천명이 주둔했던 캄란만 기지)의 러시아 해군기지에서 실제로 그러한 일이 벌어졌다.

그러나 소련 붕괴 이후 점유 기지들에서 러시아 해군 전력이 철수한 뒤, 모스크바 당국은 세계 대양 각지의 해군기지가 단순한 대외정책적 유행이 아니라 절박한 필요사안라는 점을 "돌연" 깨달았다. 다만 이는 해당 국가가 영향력 있는 해양강국의 지위를 유지하고자 하고 그에 상응하는 재정적 비용을 감당할 의지가 있을 때에만 성립하는 명제다.

이런 점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구소련, 이후 러시아의 쿠바 및 베트남 해군기지를 둘러싸고 전개된 일련의 사건이다. 2003년 러시아군이 쿠바에서 철수하면서 그들은 연안 장비뿐만 아니라 수도 아바나 교외 로우르데스에 조성된 도시 하나를 통째로 남겨두고 떠났다. 그곳에서는 미국 내 모든 전화 통화가 감청되었다(한때 3,000명이 넘는 소련, 이후 러시아 장병이 근무했다).

기지가 폐쇄되고 모스크바가 쿠바에 연간 2억 달러의 임차료(경화가 아니라 러시아산 제품 및 석유제품으로 지불) 지급을 거부하면서, 러시아는 서반구 전체에서 어떠한 해군 주둔도 유지하지 못하게 되었다.

본 발간물은 한국해양전략연구소의 저작물로서 인용 시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2016년에 모스크바는 쿠바와의 해군 협력을 점진적으로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당시 러시아와 미국 간 관계가 이미 크게 악화되고 있었던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그 결과 지르콘(Zircon) 미사일을 탑재한 러시아 군함이 쿠바 항구에 기항하기 시작했고, 2017년에는 쿠바 내 본격적인 러시아 군사기지 개설을 위한 협상이 진행되었다. 코로나19 팬데믹 직전에는 러시아 해군 전술단이 미국 내 표적을 잠재적 적으로 상정하고 정밀유도 미사일을 사용해 쿠바 영해에서 훈련을 실시했다.

동시에 러시아 측은 자국의 현대적 기술이 쿠바 항구에 러시아 함정을 주둔시키지 않고도 대서양 횡단 거리를 커버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을 미국에 과시하고자 했다. 아울러 쿠바에는 여전히 미국의 관타나모만 기지가 존재한다는 점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쿠바 지도부는 전통적으로 자국 영토에서 이 기지를 철수할 것을 요구해 왔으나, 미국은 그러한 요구를 그저 무시하고 있다.

한편 현재 러시아 해군이 러시아연방 국경 밖에 유지하고 있는 해군기지는 시리아 타르투스의 군수지원기지 단 하나뿐이다. 이곳은 지중해에서 작전하는 러시아 군함에 정박·보급·수리를 제공한다. 이 기지 자체는 1971년부터 운용되어 왔으며, 2017년에는 부지를 확장하고 49년간 무상 사용 조건으로 러시아에 이양하는 협정이 체결되었다.

그러나 2025년 상황은 급격히 변했다. 러시아에 우호적이던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이 국외로 도피했고, 새로운 시리아 당국은 모스크바가 자국 내 기지(흐메이밈의 해군 및 공군 기지)를 계속 보유하려면 주둔 대가를 지불하고 다마스쿠스 신정부의 여러 요구를 충족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특히 2015~2025년 시리아 내 분쟁 기간에 파괴된 군사·민간 시설에 대해 러시아가 시리아 정부에 배상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했다).

동시에 러시아 의회에서는 세계 각지에서 군사적 주둔을 대규모로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를 둘러싼 논쟁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논의의 논리는 단순해 보인다. 해외 군사기지

본 발간물은 한국해양전략연구소의 저작물로서 인용 시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는 국가의 방위력을 강화하고 지정학적·경제적 이익을 규정하고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예컨대 미국도 사실상 전 세계에 걸쳐 880개가 넘는 기지 및 군사시설을 두고 있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한다.

초강대국까지는 아니더라도 강하고 자립적인 국가를 지향하는 대다수 나라들이 국경 밖에 최소한 한두 개의 군사기지를 유지하려 하는 것도 우연이 아니다. 현재 해외 군사기지의 수, 그리고 그곳에 배치된 병력과 장비 규모에서 미국은 세계 1위다. 그러나 프랑스, 영국, 독일, 중국, 일본, 인도, 튀르키예, 파키스탄 역시 국경 밖에 군사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러시아도 그러한 시설을 갖고 있으나, 현재는 주로 아프리카에 새로운 해군기지를 개설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상기하자면, 러시아는 현재 압하지야(해군), 아르메니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몰도바의 트란스니스트리아 지역, 시리아(해군), 타지키스탄, 남오세티야에 군사기지를 두고 있다. 2022년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군사분쟁 이후 국방부 관계자로 대표되는 러시아 당국은 타국에 러시아 군사기지를 설치하는 것의 중요성을 점점 더 빈번하게 언급해 왔다. 그 대상으로는 이집트, 리비아, 수단, 소말리아, 예멘,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모잠비크가 거론된다.

베트남과 쿠바의 러시아 해군기지 복원도 제안되고 있다. 러시아 대통령에 따르면, 러시아는 대서양, 인도양과 동아프리카 연안, 그리고 아시아·태평양 지역 등 핵심 전략 지역의 상황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 세계 각 지역과 관련해 러시아 국방부는 최소한 아프리카 북부 및 동부 연안, 동남아시아, 그리고 라틴아메리카 내 대서양 연안의 특정 지역에 군사기지를 설치하는 방안을 선호한다고 평가한다.

흥미롭게도 쿠바 외에 베네수엘라에도 러시아 군사기지 전개가 계획되어 있었다. 이는 러시아가 미국 국경에 더 근접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전략적으로 중요한 이 지역에서 전반적인 존재감을 확립할 수 있게 하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니콜라스 마두로 베

본 발간물은 한국해양전략연구소의 저작물로서 인용 시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수엘라 대통령이 축출되어 본인과 부인에 대한 재판을 받기 위해 미국으로 이송된 이후, 해당 국가 내 러시아 해군기지 개설과 관련한 모든 협상은 완전히 배제되었다.

쿠바를 둘러싼 상황도 유사하게 전개되고 있다. 올해 초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축출된 데 이어, 미국은 쿠바에서도 정권 교체를 계획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군사작전의 결과가 아니라 순전히 쿠바 내부의 경제적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도 있다. 바로 그런 이유에서 쿠바 지도부는 섬 내 정치체제의 완전한 붕괴를 어떻게든 막기 위해 미국과 비밀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이유에서 쿠바 내 러시아 해군기지 개설에 관한 러시아와의 모든 협상은 완전히 중단되었다.

러시아 군사 전문가들에 따르면, 해외 러시아 군사기지는 국제 테러리즘 및 해적 행위(특히 아프리카 대륙 북동부 연안) 대응에서 중요한 수단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러시아가 쿠바에서 베트남에 이르는 해외 해군기지를 유지할 여력이 있는가? 러시아는 이들 해외 기지를 지원하고 운용 상태를 유지할 만큼 충분한 함정과 군사·기술적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가?

여기서 필자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요인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 러시아는 이를 달성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고 심지어 영향력 있는 해양 강국으로서의 지위를 재차 내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는 극히 어려울 것이다. 특히 광범위한 전 지구적 해군 주둔을 경제력·재정력·정치력으로 뒷받침하는 미국의 역량을 모방하려 할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말하자면, 해외에 해군기지를 성공적으로 구축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강력하고 현대적이며 지속적으로 개량되는 해군력을 먼저 갖추어야 한다. 이른바 대양함대(High Seas Fleet), 즉 그에 상응하는 원양·근해 함정 전력을 갖춘 대양해군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대적 함정을 보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함정용 엔진의 자체 생산 체계를 구축해야 하는데, 이는 러시아 군함(주로 10,000~12,000마력급 디젤엔진)에 여전히 중대한 과제

본 발간물은 한국해양전략연구소의 저작물로서 인용 시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로 남아 있다.

러시아는 현재 알제리와 상설 해군기지 설치를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리비아에서는 벵가지 지역을 통제하지만 트리폴리 중앙정부에 종속되지 않은 하프타르 원수가 이끄는 정부와도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베트남 캄란만에서 러시아 해군 주둔을 재개하는 문제도 계속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이 구상은 러시아 태평양함대가 훨씬 더 강력해지고 현대적인 군함으로 무장할 경우에만 성공할 수 있다.

현재 이 함대의 일차적 목표는 군사분쟁 발생 시 미국 및 일본 해군으로부터 연해주, 캄차카, 사할린섬, 쿠릴 열도를 엄호·방어하는 것이다. 모스크바는 현재 해군항공, 해안미사일 체계, 항공기, 잠수함을 통해 이 지역들을 방어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그리고 필자가 지적하고자 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해외 해군기지 설치에 소요되는 막대한 재원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러시아 국방부가 계획한 건설 속도로는 해군기지 하나를 개설해 운용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데만 최소 10년이 걸릴 것이다. 여기에는 해군과 해군항공 양쪽에서 광범위한 분야의 자격을 갖춘 인력과 전문가도 필요하다.

또한 대서양, 인도양, 태평양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항공모함 3척 이상을 건조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북극 연안 방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신규 함정 건조가 추가로 필요한데, 미국은 이미 노르웨이와 캐나다에 기지를 두는 자국의 해군 주둔을 검토하고 있다.

해외 기지에 대한 재원 조달 역시 결정적인 요소이다. 어떤 나라도 그러한 사치를 감히 감당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우크라이나와의 군사분쟁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러시아의 현재 경제성장률은 1.5%에 불과하다. 임금·연금 지급의 어려움, 빈곤 증가를 비롯한 여러 문제를 감안하면, 재무부는 그것이 아무리 전략적으로 중요하고 미국이나 일본 연안에 위치함으로써 얻는 이점이 크다 하더라도 해외 해군기지 단 한 곳에 대한 국방부 예산 지원조차 즉각 거부할 것이다.

본 발간물은 한국해양전략연구소의 저작물로서 인용 시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 현재 러시아 해군의 해군기지 개설 방안으로는 두 가지가 논의되고 있다. 하나는 서아프리카 국가 토고에 기지를 두는 방안(가봉에도 유사한 제안이 이루어졌다)으로, 이 기지를 통해 부르키나파소, 말리,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니제르에 주둔한 러시아 아프리카 군단(Russian African Corps)과 연계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북한과의 해군 협력을 확대해 현지의 기존 항만 인프라를 활용하는 방안이다. 이곳에서 러시아 수병이 복무하고, 러시아 태평양함대 함정이 북한의 군사기지를 자국 목적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요구되며 북한 내 러시아 해군 주둔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러시아와 북한 해군 간 공동 협력 체계에서 해당 주둔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는 조건이 실질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본 발간물은 한국해양전략연구소의 저작물로서 인용 시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Are Naval Bases Abroad Necessary?

Subtitle: They Are Still Necessary, but Only for Those Countries Interested in Global Domination.

Russian State University

Professor

Yury Sigov

For many years after the end of World War II, our entire planet was effectively the arena of an ongoing struggle for global domina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Soviet Union. In this struggle, all means were considered acceptable, but above all, it was waged between the armed forces of the two countries and the blocs subordinate to them—NATO and the Warsaw Pact. Neither bloc directly engaged in military confrontation, but they sought to maintain their military and political influence across the globe.

This was achieved primarily through the deployment of a vast network of naval bases. Since both the United States and the USSR desired to control vast territories, especially those separated by vast expanses of ocean, the construction and maintenance of their naval bases were a priority for both Moscow and Washington.

At one time, the Soviet Union had 17 naval bases in countries along the Indian, Pacific, and Atlantic Oceans. Some of these were simply called "fleet logistics centers," but in essence, such designations didn't change the essence of the practical meaning of naval bases.

In some countries—Yemen, Syria, Cuba, Somalia, Angola, and Guinea—Soviet naval ships were permanently stationed. In other locations, they called regularly only to replenish water, fuel, and food supplies, but by agreement with these countries (for example, the Seychelles), they could also station warships there at any time for missions in the Indian Ocean.

The United States operated even more globally in the oceans. It not only established naval bases in more than 70 countries around the world, but also did everything possible to ensure that, if necessary (namely, in a direct military clash with the USSR), it could inflict maximum damage on the potential enemy's territory from these bases.

But then came 1991, and one of the superpowers ceased to exist. The Soviet Union collapsed, and the question immediately arose: what to do with the naval bases of this once influential maritime and oceanic power? The Russian Federation, which inherited these bases, was in such a dire military and economic situation that the authorities in Moscow had no time to maintain their naval presence in distant lands.

본 발간물은 한국해양전략연구소의 저작물로서 인용 시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Furthermore, a number of countries that had recently been considered Moscow's allies, seeing what had happened there and the manner in which the Soviet Union had collapsed, either put forward strict demands for payment for naval visits by Russia or even asked sailors from the Russian Navy to leave their territory.

This is what happened with the Russian naval bases in Cuba (the port of Cienfuegos, where Soviet submarines carrying missiles aimed at the United States were once based) and Vietnam (the base at Cam Ranh Bay, where several thousand sailors and pilots from Russian army units under the Pacific Fleet were stationed until 2002).

However, after the withdrawal of Russian naval forces from overseas bases following the collapse of the USSR, the authorities in Moscow "suddenly" realized that naval bases across the world's oceans were not just a foreign policy fad, but a pressing necessity. But this could happen only if the country desired to maintain its status as an influential maritime power and was willing to bear the corresponding financial costs.

Particularly interesting in this regard are the events that unfolded around the former Soviet and later Russian naval bases in Cuba and Vietnam. When the Russian military withdrew from Cuba in 2003, they left behind not only coastal equipment but also an entire town in Lourdes, a suburb of the capital, Havana. From there, all telephone conversations in the United States were monitored (at one point, more than 3,000 Soviet and later Russian servicemen served there).

When the bases were closed, and Moscow refused to pay Cuba $200 million a year for rent (not in hard currency, but in goods produced in Russia, as well as petroleum products), it turned out that Russia no longer had any naval presence in the entire Western Hemisphere.

However, in 2016, Moscow began gradually resuming naval cooperation with Cuba. This was especially the case because relations between Moscow and Washington had by then begun to deteriorate significantly.

As a result, Russian warships equipped with Zircon missiles began calling at Cuban ports, and in 2017, negotiations were held to establish a full-fledged Russian military base in Cuba. Just before the COVID-19 pandemic, a Russian naval tactical group conducted exercises in Cuban territorial waters using precision-guided missiles, with targets within the United States designated as potential targets.

At the same time, the Russian side attempted to demonstrate to the Americans that its modern technology allowed it to cover transatlantic distances without the need to station Russian naval ships in Cuban ports. It's also worth remembering that the American base at Guantanamo Bay still exists in Cuba. The Cuban leadership traditionally demands that it be removed from its territory, but the Americans simply ignore such demands.

Meanwhile, the Russian Navy currently maintains only one naval base outside the Russian Federation's borders: a logistics base located in Tartus, Syria. It provides berthing, supplies, and repairs for Russian warships operating in the Mediterranean. The base itself has been operational

본 발간물은 한국해양전략연구소의 저작물로서 인용 시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since 1971, and in 2017, an agreement was signed to expand its territory and transfer it to Russia for free use for 49 years.

But everything changed dramatically in 2025, when the Syrian government loyal to Russia, led by Bashar al-Assad, fled the country, and the new Syrian authorities made it clear that Moscow could retain its bases in the country (the naval and air force bases in Khmeimim) only if Moscow paid for their stay and met a number of other demands from the new government in Damascus (in particular, Russia was required to pay reparations to the Syrian government for military and civilian facilities destroyed during the conflict in the country from 2015 to 2025).

At the same time, debates began in the Russian parliament about whether the country needed a large-scale expansion of its military presence in various parts of the world. The logic of such discussions seems simple: military bases abroad are needed to strengthen the country's defense capability and to define and to protect its geopolitical and economic interests. In the United States, for example, this is precisely how the government justifies the presence of more than 880 bases and military facilities practically all over the world.

It's no coincidence that most countries aspiring to be strong and self-sufficient states, not even superpowers, prefer to maintain at least one or two military bases outside their borders. Currently, the United States is the world leader in the number of personnel and equipment stationed at foreign military bases. However, France, Great Britain, Germany, China, Japan, India, Türkiye, and Pakistan also have military facilities outside their borders. Russia has such facilities, but the question has now arisen of opening new naval bases, primarily in Africa.

As a reminder, Russia currently has military bases in Abkhazia (naval), Armenia, Belarus, Kazakhstan, Kyrgyzstan, the Transnistria area of Moldova, Syria (naval), Tajikistan, and South Ossetia. Since the Russian-Ukrainian military conflict began in February 2022, Russian authorities, represented by Defense Ministry officials, have increasingly spoken about the importance of establishing Russian military bases in other countries. Among these are Egypt, Libya, Sudan, Somalia, Yemen, the Central African Republic, and Mozambique.

It is also proposed to restore the Russian naval bases in Vietnam and Cuba. According to the Russian president, Russia needs to control the situation in key strategic areas: the Atlantic, the Indian Ocean and the East African coast, as well as the Asia-Pacific region. Regarding various regions of the world, the Russian Ministry of Defense estimates that Russia would prefer to establish military bases at least on the northern and eastern coasts of Africa, in Southeast Asia, and on the Atlantic coast somewhere in Latin America.

Interestingly, in addition to Cuba, Russian military bases were planned for deployment in Venezuela, which would allow Russia not only to be closer to the US border but also to establish a general presence in this strategically important region. But after Venezuelan President Nicolás Maduro was overthrown and taken to the United States to stand trial along with his wife, any negotiations regarding the opening of a Russian naval base in that country are completely ruled out.

본 발간물은 한국해양전략연구소의 저작물로서 인용 시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The situation around Cuba is developing similarly. Following the overthrow of the Venezuelan president earlier this year, the United States is planning a regime change in Cuba as well. This may not occur as a result of a US military operation, but for purely economic reasons within Cuba. Accordingly, this is precisely why the Cuban leadership is conducting secret negoti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to somehow prevent the complete collapse of the political regime on the island. And for this same reason, any negotiations with Russia regarding opening a Russian naval base in Cuba have been completely abandoned.

According to Russian military experts, Russian military bases abroad are an important tool in the fight against international terrorism and piracy (particularly off the northeastern coast of the African continent). But can modern Russia afford to maintain naval bases abroad—from Cuba to Vietnam? Will Russia have sufficient ships and military-technical resources to support these overseas bases and keep them operational?

Here, I believe, we must consider the following important factors, which, despite all the desire to do so – and even renewed claims to the status of an influential maritime power – will be extremely difficult for Russia to achieve. Especially when trying to emulate the capabilities of the United States, which backs its extensive global naval presence with its economic, financial, and political might.

So, in order to successfully deploy and maintain naval bases in other countries, a country must first and foremost have a powerful, modern, and constantly updated fleet. This requires a High Seas Fleet, that is, an ocean-going navy with a corresponding fleet of ocean-going and offshore vessels. To achieve this, the country must not only have modern ships but also establish the production of marine engines, which remains a major challenge for Russian military vessels (primarily diesel engines with a capacity of 10,000-12,000 horsepower).

Russia is currently negotiating with Algeria to establish a permanent naval base. Negotiations are also underway in Libya with the government led by Marshal Haftar, who controls the Benghazi region but is not subordinate to the central government in Tripoli. There are ongoing talks about resuming Russia's naval presence in Vietnam at Cam Ranh Bay. However, this plan will only succeed if Russia's Pacific Fleet becomes significantly more powerful and is equipped with modern warships.

For now, this fleet's primary objective is to cover and protect the Primorye region, Kamchatka, Sakhalin Island, and the Kuril Islands from the US and Japanese navies in the event of a military conflict. Moscow is currently focusing on defending these areas with naval aviation and coastal missile systems, aircraft, and submarines.

And here's what I'd like to point out. Even without taking into account the enormous funding required to establish naval bases abroad, at the rate of construction planned by the Russian Ministry of Defense, it would take at least 10 years to open and make one naval base operational. This would also require qualified personnel and specialists from a wide range of fields, both naval and naval aviation.

본 발간물은 한국해양전략연구소의 저작물로서 인용 시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At least three aircraft carriers would also need to be built to cover the Atlantic, Indian, and Pacific Oceans, at a minimum. Furthermore, the importance of protecting the Arctic coast is growing, which would also require the construction of new vessels, even as the United States is already considering its own naval presence with bases in Norway and Canada.

Funding for foreign bases is also crucial here; no country would dare to undertake such a luxury. Russia's current economic growth rate, despite the ongoing military conflict with Ukraine, is only 1.5%. Given the challenges of paying wages and pensions, rising poverty, and many other problems, the Ministry of Finance would immediately refuse to finance the Ministry of Defense for even a single naval base abroad, no matter how strategically important it might be, and no matter what benefits its location off the coast of the United States or Japan might offer.

As a result, two options for opening naval bases for the Russian Navy are currently being discussed: a base in the West African country of Togo (a similar proposal has also been made to Gabon), from which the base could be used to interact with the Russian African Corps stationed in Burkina Faso, Mali, the Central African Republic, and Niger.

Another option is expanding naval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utilizing the existing port infrastructure there, where Russian sailors could serve, and Russian Pacific Fleet ships could utilize North Korean military bases for their own purposes. However, this will again require a considerable amount of money, and for a Russian naval presence in the DPRK, certain conditions must be created under which it will be vital for the joint interaction between the naval forces of Russia and North Korea.

본 발간물은 한국해양전략연구소의 저작물로서 인용 시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약력

Yury Sigov 교수는 러시아 대통령 국가경제 아카데미의 국제관계 및 국제저널리즘 교수이다. 또한 모스크바의 국립 러시아인문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를 역임하고 있다. 경영 및 무역, 세계 정치, 금융 시장, 정치 및 경제 관계, 개발도상국의 외교정책, 국제무역, 인도주의 및 기타 사회 문제에 관한 35권의 저서와 10,000편 이상의 기사를 세계 여러 나라에서 14개 언어로 발간해왔다.

국내외 추천 자료

- Arts, Sophie, Pelham Hardie, and Jana Ondraskova. "Russia's Near-Term Power Projection Capacity: Constrained, but Opportunistic." German Marshall Fund of the United States, September 1, 2026.6.
- Lesser, Ian, Özgür Ünlühisarcıklı, and Pelham Hardie. "Russia, the Black Sea, and the Mediterranean: A European Security Perspective." *German Marshall Fund of the United States*, August 12, 2026.
- Karr, Liam, Michael DeAngelo, Yale Ford, et al. "Russia Operationalizes Military Presence in Togo." *Africa File*, Critical Threats Project, July 30, 2026.

알림

- 본지에 실린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본 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 KIMS Periscope는 매월 1일, 11일, 21일에 이메일로 발송됩니다.
- KIMS Periscope는 안보, 외교 및 해양 분야의 현안 분석 및 전망을 제시합니다.
- KIMS Periscope는 기획 원고로 발행되어 자유기고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웹페이지보기

본 발간물은 한국해양전략연구소의 저작물로서 인용 시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